



環境保全의 중요성과 言論의 役割



朴 魯 敬
(京鄉新聞 論說委員)

I. 科學기술 시대의 환경

얼마전 지구와 銀河와의 거리가 10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광학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했다는 기사를 외지에서 본 일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한 천문학교수는 지구와 은하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스펙트르赤方偏移(광의 파장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은하가 지구로 부터 광속의 3분의 2인 초속 19만 9천 553 km란 스피드로 지구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우주과학의 놀라운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과학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그것은 컴퓨터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로봇산업에서 세계첨단을 달리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닛산자동차 공장에서는 470대의 로봇이 철문을 절단하고 깎고 구멍을 뚫고 용접하고 塗裝하고 있으며 요리사 로봇은 식당에서 김밥을 말아내고 간호원 로봇은 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목욕탕에 들어넣는 일을 맡아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는 시각·청각·촉각·사고력등에 해당하는 센서(sensor = 감지기)를 장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류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일대 경이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생명공학내지 유전자공학이 인류의 존재양식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의 생존조건으로서의 환경—즉, 깨끗한 공기와 청정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 그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1만리터(13.6 kg)의 공기와 2 kg의 물과 1 kg의 食物을 필요로 한다. 어른이 건강생활을 영위하려면 이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물질의 공급을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면 사람은 죽게된다고도 한다. 전문가는 이러한 사람의 사망조건을 공기는 5분이상, 물은 5일이상, 식물은 5週이상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그 공급되는 물질이 오염되어 있으면 사람은 생명과 건강을 보전할 수가 없다. 런던 스모그 사건과 욕까지 찌 천식사건(이상은 대기오염), 이따이 이따이병(카드뮴중독)과 미나마타병(유기수은중독)(이상은 수질오염), 그리고 카네미 미장유사건(PCB중독)과 알라모골드사건(유기수은 중독)(이상은 식물오염)은 환경오염이 현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環境汚染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환경의 오염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난 20년동안 진행되어 왔다. 비록 앞에 적은 것과 같은 기괴한 공해병이 발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동·식물의 피해는 이미 몇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G자와 W자로 구부러진 기형어의 출현과 오염이 심한 지천과 호소 및 연해에서의 철새와 어패류의 대량폐사,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의 농작물의 고사와 과수원의 폐농등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다.

오염심화 추세는 관청의 조사자료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립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주요하천의 오염도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낙동강(왜관취수장)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82년도의 2ppm에서 83년엔 2.7ppm으로 금강(대청댐)은 82년=0.9ppm에서 83년=1.3ppm으로 각각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금강등의 본류에서 비록 미량이지만 거의 예외없이 맹독한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검출된 중금속물질이 1ppb(10억분률)내지 3ppb밖에 안되는 극미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극미량이라 할지라도 바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미나마따병과 이따이 이따이병을 일으킨 무서운 물질(수은과 카드뮴)이 이들 강의 본류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환경오염의 두드러진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오염은 물만이 아니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로 심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공표되어 있는 자료(SO₂=아황산가스)만 보면 저유황유가 보급되기 시작한 81년부터 대기오염치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가장 심한 서울 부산의 경우를 봐도 다같이 0.051ppm(83년)으로서 SO₂의 환경기준(0.05ppm)을 겨우 0.001ppm밖에 초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대기오염도 마찬가지로 심화되고 있지 않나 한다」라고 표현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일상적 감각적으로 느끼는 서울의 대기오염은 조금도 호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산에서 내려다 보는 서울의 빌딩군은 항상 유백색 스모그에 잠겨 있고 미아리와 무악재갯길의 보행에서 목에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것은 SO₂를 제외한 오염물질—이들테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부유분진, 옥시탄트, 탄화수소등 물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또 하나 대기오염의 악화개연성은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3월말 현재로 33만501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1년 22만1,644대에 비하면 불과 2년사이에 49.1%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도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따라서 교통소통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대수가 이렇게 격증하면 그만큼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따라서 자동차배기가스중 CO(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교통정체는 자동차의 아이들링(정차중 엔진의 空轉상태)을 강요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배출되는 CO량은 시속 40km로 달릴때 배출되는 그것보다 7~8배나 많기 때문이다.

III. 언론의 기능과 역할

이러한 환경오염의 진행은 언론에게 커다란 역할을 기대케 한다. 이것은 언론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중대역할을 담당할만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론」의 정밀한 개념 규정을 할 겨를이 없거니와, 상식적으로 신문문을 비롯한 각종 활자매체와 TV, 라디오등 전파매체를 포괄하여 언론이라 한다면 오늘의 언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도기능, 유도기능, 교육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 및 이밖의 여러가지 역기능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 신문학자(Wilbur Schram)는 신문의 기능을 파수병의 사명과 정치적 사명 및 교육적 사명으로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Harold D. Lasswell)는 감시자의 사명과 정보교환, 분위기 조성의 사명 및 사회계승의 사명등을 열거하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기능들로 해서 오늘의 언론은 환경보전을 위한 중대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짊어지워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론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음은 물론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환경보전(운동)의 호소와 정부의 올바른 환경보전 정책을 增幅·재생산하는데 목적의식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언론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적극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① 우선 뉴스의 취재태도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 뉴스를 취재하는데는 대체로 2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뉴스를 모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뉴스를 탐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뉴스를 모으는 것은 사회표면에 현재하는 사실—즉 폭발적 사건이나 부각된 사태를 끌어모아서 뉴스화하여 보도하는 보도태도를 말하고 뉴스를 탐색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사회적·자연적사실—즉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중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추구해서 이것을 뉴스화하는 보도태도를 말한다.

환경문제가 마칩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문제인 이상 언론의 취재태도는 당연히 후자—즉 뉴스의 탐색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환언하면 언론은 정부의 환경정책(발표사항)과 나타난 사실을 취재·보도하는 이외에 문제가 있을만한 현장(그것이 하천이든 도심이든 공단이든 산림이든)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발굴·보도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② 언론의 제작에 있어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마찬가지로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취재된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오염·파괴기사는 되도록이면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그 제목의 크기와 기사의 배열등에 있어서도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기획면에 있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좌담·해설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풀이해 주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반국민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IV. 아젠더·세팅이론의 무게

최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신문에 관한 美·日 국제세미나에서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에 있으나 신문의 이용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신문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난 7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아젠더·세팅」(agenda setting)이론은 환경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언론이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연세대학의 李相回교수는 그의 한 세미나 논문(인쇄매체(신문)를 통한 가족계획홍보=82년 12월)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사건과 현상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있다고 한다. 피조사자에게 특정 매스 미디어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수용케 한 후 사건과 현상을 無順으로 적은 리스트를 주고 그 중요성의 순위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수용한 매스 미디어의 뉴스·밸류와 일치하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매스·미디어의 수용자는 자기가 수용한 매스·미디어의 뉴스·밸류에 따라 사건과 현상의 중요성을 파악하더라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수용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스·미디어의 기준(뉴스·밸류)을 内面化 한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자명해졌지만 언론이 이렇게 어떤 사건과 현상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기준을 수용자에게 가르치는 강력한 기능(agenda setting)을 가진 이상, 그리고 이러한 감화기능이 날마다 바쁜 공사생활에 쫓기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강한 영향력을 주게 마련이라면 환경보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